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통한 죽음인식에 대한 교육적 접근 연구 — 장면분석을 중심으로

김수완 단국대학교 문예창작과 박사 수료

- I. 서론
- II. <8월의 크리스마스>에 나타난 죽음에 대한 인식
- III. 결론

I. 서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운 대상으로 인식한다. 하지만 죽음이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두려워하는가, 라는 물음에는 정확히 답을 하지 못한다. 죽음은 우리가 아무리 거부해도 언젠가는 틀림없이 우리 앞에 도래하는 필연적인 사건이다. 이렇듯 죽음이란 “우리의 삶에서 가장 확실한 가능성임”(구인희, 2015: 26)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는 물론 죽음의 체험 불가능성 때문이지만, 보다 실질적인 이유는 우리가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해 죽음을 회피한다는 데에 있다. 즉 죽음은 무엇인가, 라고 묻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인을 대상으로, 죽음에 대한 생각 유무와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상황을 조사(김명숙, 2010: 81-85)한 결과를 보면, 노소에 관계없이 응답자들의 80% 이상이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하고는 있지만, 생각하게 되는 상황을 살펴보면, ‘누군가 질병이나 사고로 죽었을 때’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났고, ‘평상시 가끔, 문득, 수시로’가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는 죽음에 대한 생각이 본질적이고 항시적이라기보다 피상적이

며 일시적이라는 것을 밀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몇몇 조사¹⁾에 따르면, 청소년들 또한 죽음에 대해 자주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각하고 있더라도 대체적으로 피상적으로 이해하거나 어떤 부분에서는 왜곡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죽음을 금기시 하는 문화를 바탕으로 선택과 배제의 원리에 의해 그동안 죽음은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죽음은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그리 멀리 있는 것이 아니며, 한 편으로는 삶의 다른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다. 살고 있는 과정이 곧 죽어가는 과정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죽음은 언젠가는 반드시 찾아오는 규범적 생애사건이면서, 언제든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오는 비규범적 생애사건이다(임병식·신경원, 2017: 421-422). 이러한 죽음의 속성은, 우리 삶의 어느 시기에서건 그에 적합한 죽음교육이 이루어져야만 함을 시사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시한부 환자들을 관찰하며 ‘죽음과 죽어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는 퀴볼리 로스도 비슷한 맥락에서 죽음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녀는 인간이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게 된

-
- 1) 서울·경기·인천 소재 중·고등학교 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조사-최근에 죽음 생각 여부(N=476) : 자주 있다 68 (14.32), 1-2번 정도 257 (54.11), 전혀 없다 150 (31.58), 무응답 1. / 죽음에 대한 수용태도 내용(총점5) : 죽음은 나와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4.01±1.10), 살아날 가능이 없고 고통이 심한 환자의 경우 환자나가족이 원한다면 안락사 시키는 것이 좋다.(2.28±1.30)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감상적인 사람이다. 살이 있는 한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열심히 살면 되는 것이다.(2.54±1.23), 죽음은 삶의 패배이고 좌절이다.(3.25±1.34), 죽은 후에 자신의 시신이 과학 실험용이나, 장기이식 등에 쓰여도 좋은 일이다.(3.04±1.42), 다른 사람과 죽음에 대해 터놓고 얘기하며 죽음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일이다.(3.11±1.75) (김현주, 2005: 18-25)
- 대구 경북 지역, 중학교2학년, 고등학교 2학년 407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조사 - 죽음 이란 말을 통해 연상되는 것을 분석할 결과, 슬픔 70명, 끝 40명, 사후세계 38명, 고통 36명, 소멸 29명, 그리움 28명, 이별 27명, 두려움 27명, 장례 26명, 허무 22명, 무서움 21명, 새로운 시작 20명, 자살 15명, 환생 10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내용에 따라 재분류 하면, ‘끝, 소멸, 허무’ 같이 죽음을 생물학적 종식으로 보는 입장이 제일 높음. 이를 통해 삶과 죽음을 이분법적으로 인식하고, 삶에서 죽음을 배제하는 근대적 죽음관이 보편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정재걸·이현지·이승연·백진호, 2013: 541-542)

것은 현대사회에서 죽음이라는 것이 여러 면에서 좀 더 외롭고 좀 더 기계적이며 좀 더 비인간적인 것이 되었기 때문이라며, 개별적 존재로서의 인간으로 돌아가서 다시 처음부터, 비극적이지만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사건을 좀 더 이성적이고 두려움 없이 이해하고 직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엘리자베스 쿠블리 로스, 1974/2018: 40-52)고 역설했다.

또한 평생을 생사학[死生學]에 바친 알폰스 데肯 교수는 죽음을 터부시하는 경향 때문에 죽음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Sein zum Tode)’라는 하이데거의 말을 빌어, 살아감에 있어 죽음에 대한 준비는 어느 시기이든 필요하고, “죽음에 대한 시야가 넓어지면서 삶과 사랑의 의의를 보다 새롭게 사색할 수 있다”(알폰스 데肯, 2002: 20-21)고 역설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청소년 시기에서의 죽음교육은 보다 절실해 보인다. 성인에 비해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들은 그만큼 죽음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과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해나가는 시기인 만큼, 죽음교육을 통해 보다 바람직한 세계관과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많은 주의 초·중등학교에서 죽음준비교육을 다양한 교과목 안에 포함시켜 가르치고 있다. 보건교육의 일부로 가르치기도 하고 죽음을 문학의 교재로 취급하기도 하고 사회과목 수업 중 다양한 각도로 죽음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도 있다. 독일에서도 매주 두 시간씩 종교수업을 이용하여 죽음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좋은 교과서가 많이 출판되고 있다(알폰스 데肯, 2002: 161-175). 이에 비하면 한국은 아직 미흡한 단계이며, 앞으로 여러 방면에서 죽음교육과 관련된 커리큘럼과 학습자료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²⁾

2) [9도04-03] 삶과 죽음의 문제를 도덕적으로 성찰하고, 평정심을 추구하며 자신의 삶의 의미를 구성할 수 있다.’가 서술되어 있다. 또한 고등학교 도덕과 일반 선택과목인 ‘생활과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문학 텍스트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온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는 이에 적합한 자료이며, 특히 영화라는 매체적 장점을 감안하면 그 활용 가치가 높다고 하겠다.

허진호 감독은 <8월의 크리스마스>를 가수 김광석의 영정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게 되었다고 한다. 감독은 그의 특유의 미소년 같은 웃음을 머금은 사진을 보며, 죽음이란 '살아가면서 느끼고 체험하게 되는 일상에 지나지 않는 일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사람 사는 이야기'(김만진, 2004: 112-115)를 하고자 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현 문학교과서 안에서의 <8월의 크리스마스> 학습 내용을 살펴보면, 극 양식으로서의 특징과 관련된 내용에 국한되어 있다.³⁾ 또한 최근, <8월의 크리스마스>를 활용한 교육 방안 연구(강경화, 2014)에서도 문학 내에서의 수용을 넘어 본격적인 영화 텍스트로써의 수용 방안을 모색하는 데 방향이 맞춰져 있고, 죽음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지는 않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고에서는 장면분석을 중심으로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에 드러난 죽음의식을 조명해 보고, 그 교육적 활용 가치를 점쳐보고자 한다.

윤리'의 '생명과 윤리'영역에서 '삶과 죽음의 윤리'를 다루며, [12생윤02-01]삶과 죽음에 대한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여러 윤리적 입장을 비교·분석하여, 인공임신중절·자살·안락사·뇌사의 문제를 자신이 채택한 윤리적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의 성취기준을 세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안소윤, 2018: 7-8)

국어교과서에서 죽음과 관련된 내용을 분석하여 이를 죽음교육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 「국어교과서를 활용한 죽음교육」(김도희, 2010), 죽음교육의 도덕교육적 의미를 밝히고자 한 「죽음과 도덕교육에 대한 일 연구」(이진희, 2008), 설문조사를 통해 청소년의 죽음의식을 조사한 「청소년의 죽음 의식 연구」(지봉환, 2007) 등이 그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정재걸 외, 2013: 539에서 재인용)

- 3) 제목의 의미, 정원과 다림의 관계에서 사진의 역할, 인물의 행동의 의미, 황동규의 '즐거운 편지'를 활용한 내용 이해, 마지막 내레이션의 의미 등.(김윤식·김종철·정호웅·안혁·김효정, 2011: 319-327)

주인공의 성격, 시간적 배경에 따른 사건, 제목의 의미, 장면(S#110 - 가지만 남은 화초, 밀라붙은 잉크 덩어리, 물에 풀어지는 잉크)의 상징적 의미 등.(윤여탁·김정우·박종훈·박재승·오현아·송지언 외, 2014: 138-151)

II. 본론

1. 죽음의 불안과 삶의 욕망

죽음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피하고 싶은 두려움의 대상임에는 틀림없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죽음'하면 떠오르는 말이나 느낌을 조사 (김명숙, 2010: 73-108)한 결과, 두려움/공포(20%), 종말/마무리/끝(17%), 어두움/칙칙함/외로움/허무/차가움/상실/소멸(11%)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고 한다. 그만큼 죽음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두려움과 관련된 부정적 감정들이다. 이것은 비단 한국인들만의 특별한 사정은 아닐 것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음 깊숙한 곳에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을 품고 있다. 그 이유로 알폰스 데肯은 세상과 단절이라는 정신적 고통, 혼자 죽음을 맞이해야하는 고독감, 가족과 사회에 부담이 된다는 우려, 사후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미완성인 삶에 대한 후회, 자기 소멸에 대한 두려움 등을 들 수 있고 있다(알폰스 데肯, 2002: 128-133). 〈8월의 크리스마스〉에서도 이와 같은 이유로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림 1〉 장면 36 정원 집 마루, 장면 37 운동장

‘S#36 정원 집 마루’에서, 정원(한석규 분)은 발톱을 깎다가 멈추고는 환한 밖을 바라본다. 그 다음 마루에 눕고 눈을 감는데, 눈에서 눈물방울이 조

금 세어 나온다. 그리고 다음 장면('S#37 운동장')에서 바람이 세차게 부는 텅 빈 운동장을 보여준다.(이 장면은 정원이 생각하는 사후의 이미지인지도 모른다.) 이처럼 죽음에 대한 불안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시시때때로 찾아온다.

일상 속에서 늘 죽음을 인식하며 그로 인한 불안감을 느끼며 사는 사람은 흔치 않다. 간혹 가까운 지인의 죽음이나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타인의 죽음을 접하게 되는 순간 잠시 죽음에 대한 불안감이 찾아드는 정도일 것이다. 하지만 누구나 언제든 죽을 수 있고,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면에서 우리 모두는 시한부의 삶을 산다고도 볼 수 있다. 단지 두려움의 대상이기에 그 사실을 부지불식간에 회피할 뿐이며, 망각하고 있을 뿐이다.



S#45 일식집 앞



S#46 파출소

〈그림 2〉 장면 45 일식집 앞, 장면 46 파출소

'S#45 일식집 앞'은 일식집에서 친구 철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나와 노상에서 오줌을 누는 장면이다. 영화에서 죽음이란 말이 들어가는 대사가 단 한 번만 나오는데 바로 이 장면에서이다. 그것도 아주 작은 컷속말로, “나 곧 죽는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내레이션이 테마음악과 함께 흘러나온다. “결국 농담처럼 녀석에게 말해버렸다. 이렇게 술에 취해 녀석에게 응석부리며 웃고 떠들 수 있는 날들이 내게 얼마나 남아 있을지…….” 사실 이 아닌 양 농담처럼(상대방이 진심이라고 알아차리지 않게) 친구에게 말하고는 있지만, 내레이션을 통해 우리는 정원이 곧 닥쳐올 죽음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과 나아가 누군가에게 의지하여 그 불안감을 덜어내고 싶어함

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그의 불안한 심리는 다음 장면(S#46 파출소)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난다. 정원은 친구 철구(이한우 분)와 오랜만에 술을 마신 날, 길거리에서 행인들과 시비가 붙어서 파출소에 붙잡혀 오게 되었는데, 가만히 앉아 있던 정원이 경찰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 조용하라는 말에 갑자기 홍분하면서 “조용히 해? 내가 왜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씨발. 내가 왜 조용히 해?”라고 하며 울부짖는다. 이러한 돌발행위는 분명 억누르고 가둬두었던 불안의 뇌관이 터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죽음에 대한 불안감은 때때로 삶의 욕망으로 변형되어 나타난다. 하이데거가 ‘불안’이 “세계-내-존재 자체이다”라고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하이데거는 이와 같은 ‘불안’은 나약함이라기보다 죽음을 인식하는 실존으로서의 인간임을 적극적으로 밝히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다.(마르틴 하이데거, 1927/2013: 336) 곧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삶에 대한 욕구는 서로 불가분에 관계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 장면 8 촬영실

‘S#8 촬영실’은 ‘머리 큰 여자’가 자신의 사진이 좀 이상하게 나왔다며 다시 찍는 장면이다. ‘머리 큰 여자’는 자신의 얼굴이 최대한 작게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머리카락을 쓸어내리며 자신의 큰 얼굴을 감춘다.(㉠) 그런데 정원은 웃으며 자연스럽게 그녀의 머리를 만져준다.(㉡) 그러나 ‘머리 큰 여자’는 그런 정원을 못마땅해 하며 다시 머리카락으로 자신의 얼굴을 감춘

다.(㉡) 인류가 이룩한 문명의 발전은 역으로 언젠가는 삶을 마감해야 한다는 불안감에 의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소나무에 솔방울이 많이 달린 것은 수세가 약해진 증거라고 한다. 그러니까 자신의 가진 가장 큰 허점에 대한 방어기제인 셈이다. 이런 관점에서, S#8의 ‘머리 큰 여자’(얼굴 큰)가 자신의 얼굴을 최대한 작고 예쁘게 보이고 싶은 욕망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무의식적 표출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4〉 장면 18 사진관

‘S#18 사진관’은 세 명의 남자 아이들이 반 전체 사진을 들고 와서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아이 얼굴만 확대해 달라고 하는 장면이다.(㉠) 그러다 사진관을 나가서는 한 여자를 두고 남자 아이 둘이 싸움을 벌인다.(㉡) 이 광경을 보며 다림은 “어른이나 아이나 남자들은 왜 그래요?”라고 편찬을 주고, 정원은 “남자가 여자 좋아하는 게 잘못됐나요?”라고 응대한다. 이 장면을 통해서도 반동형성으로서의 인간의 욕망을 읽어낼 수 있다. 이성에 대한 사랑, 나아가 종족을 잊고자 하는 욕구도 죽음이 없었다면 지금과는 그 양상이 판이했을 것이다.



S#89 입원실

〈그림 5〉 장면 89 입원실

이러한 죽음과 삶의 관계는 'S#89 입원실'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⑦은 식사를 하다가 식욕이 없는 표정을 지으며 젓가락을 내려놓는 장면이고, ⑧은 그릇을 밖으로 내어놓으려는 동생의 팔을 다시 붙드는 장면이다. 그런 다음 정원은 음식을 입안으로 넣으며 삶의 의지를 드러낸다.(⑨)

2. 죽음의 일상성

운동장은 이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배경이다. 운동장이란 곳은 역이나 터미널, 시장과 같이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공간의 축소이자 이합집산(離合集散)을 표상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곳은 언젠가는 차 있지만 또 언젠가는 텅 비어 있다.



〈그림 6〉 장면 6 학교 운동장, 장면 37 운동장, 장면 73 학교 운동장, 장면 106 학교 운동장

“내가 어렸을 때 아이들이 모두 가버린 텅 빈 운동장에 남아있기를 좋아했다. 그곳에서 내 곁에 없는 어머니를 생각하고 아버지도,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사라져 버린다는 생각을 하곤 했었다.” 이것은 ‘S#6 학교 운동장’에서 나오는 내레이션이다. 이 내레이션을 통해서, ‘정원’은 어렸을 때부터 사라지는 것(죽음)에 대해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생각한 데에는, 어머니와의 사별이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원이 텅 빈 운동장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은 회자정리(會者定離)의 무상성(無常性)이다. 정원의 대사 중 ‘언젠가는’이란 시간적 표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모든 존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거나 사라진다. ‘어머니’는 여기에 없고 과거의 시간 속에 있다. 그리고 ‘나’와 ‘아버지’도 오늘은 여기에 있지만 내일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시간성은 정원 옆에서 놀고 있는 ‘두 명의 아이들’을 통해서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우리는 여기에서 변화적 세계관을 읽어낼 수 있다. 모든 것들은 어제의 그것들이 될 수 없다. 하이데거는 단순한 사라짐과 인식론적 죽음을 구분하였지만(마르틴 하이데거, 1927/2013, 336-337) 이 둘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면, 변화적 세계 속의 죽음은 늘 우리 곁에 일상처럼 자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는 그러한 죽음을 일상 속에서 늘 인식해야만 하는 것이다.



㉠



㉡

S#10 화장터

〈그림 7〉 장면 10 화장터

‘S#10 화장터’는 이와 같은 일상 속에 죽음을 실제로 보여준다. 정원은 친구 철구의 연락을 받고 한 지인의 장례식장을 찾는다. 정원은 가만히 서서 검은 그림자들이 웅성거리는 곳(망자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을 바라본다. 정원이 서 있는 곳은 밝다.(⑦) 하이데거에 따르면, “타인의 죽음을 통해 현존재는 자신의 끝맺음을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마르틴 하이데거, 1927/2013: 319) 정원은 지인의 죽음과 그 죽음을 둘러싼 주변인물의 상실감을 바라보며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S#10’에서 주목할 부분은, ⑦에 이어지는 ⑦으로, 망자의 가족으로 보이는 인물이 등장하여 “산 사람은 살아야지요.”라고 말하며 식사를 재촉하는 부분이다. 이 말은 장례식장에서 흔히 들을 수 있고, 한국인의 죽음관을 짐작케 하는 말로, (타인의) 죽음으로 인한 지나친 슬픔에 대한 금기를 드러낸다. 그러니까 죽음이란 일상적인 삶 속에 비일비재한 하나의 현상일 뿐이라는 인식이 담겨 있다.

만일 누군가 죽을병에 걸렸다면 그 당사자나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대처할까, 흔히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하며 기적을 바라거나 하다못해 조금이라도 생명을 연장하려 할 것이다. 가족들은 환자의 수족이 되어 병치료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8월의 크리스마스〉에서도 정원이 병원을 내원하는 장면이 세 번 나온다. 그러나 그 장면들 모두 진료장면이 아니며 그 장면 안에는 병과 관련된 어떤 정보도 들어있지 않다. 영화는 정원의 병에 대해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며, 그것에 대한 인물들의 감정도 극히 절제되어 있다. 정원은 시한부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일상적인 삶을 살아간다. 그리고 죽음은 그 일상 곳곳에서 간간히 그 얼굴을 드러낼 뿐이다.

			
S#15 정원집	㉠	㉡	S#28 정원집 마루
	S#16 정원 마당		

〈그림 8〉 장면 15 정원집, 장면 16 정원 마당, 장면 28 정원집 마루

‘S#15 정원집’은 정원이 아버지와 같이 저녁을 준비하는 장면이다. 정원은 감자를 썰고 아버지에게 주며 “아버지, 감자요”라고 말한다. 아버지는 “냄비에 넣어. 정원아, 과 좀 뽑아올래?”라고 말한다. 정원이 “파요?” 묻고, 아버지는 “응”이라고 대답한다. ‘S#16 정원 마당’은 파를 셋던 정원이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하늘을 올려다보는 장면이다. ‘S#28 정원집 마루’은 정원의 가족이 식사하는 장면이다. 그들은 “아버지가 찌개를 잘 끓인다.”, “아내(정숙)가 음식솜씨가 없다”, “그러니까 종래(정숙의 딸)도 음식솜씨가 없을 거라”는 얘기들을 나누며 식사를 한다. 그러다, 정숙이 “오빠 내일 병원 갈 때 나한테 전화 좀 해.”라고 말한다. 이 말에 정원은 “됐어 혼자 가도 돼. 종래 밥 좀 먹여. 과자만 먹는다. 야.”라고 대꾸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정원이 심각한 병을 앓고 있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S#15’과 S#28 모두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있는 집안이 풍경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무덤덤하며 일상적이다.

			
㉠	㉡	㉢	S#68 마당
S#65 부엌			

〈그림 9〉 장면 65 부엌, 장면 68 마당

‘S#65 부엌’에서 정원은 약을 챙겨 먹고(㉠) 뒤를 돌아본다. 뒤에는 저녁식사를 하고 난 후의 설거지거리가 쌓여 있다. 정원은 담담히 설거지를 한다.(㉡) 설거지를 마친 그릇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다.(㉢) 시한부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정원의 행동은 담담하다. 정원은 마치 감기약을 챙겨 먹듯 약을 먹은 후 바로 설거지를 한다. 대개 ‘죽을병’에 걸렸다면 그 시점까지 지탱해오던 삶의 규칙과 질서가 무너지고 흩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정원은 담담히 자신이 짊어진 하루 일과를 수행하고 있다.

영화에는 음식준비하기, 씻기, 설거지와 같이 일상적인 장면들이 자주 등장한다. 이는 아마도 “죽음이 끼어든다고 해서 그리 호들갑스레 수선될 것 없다는 감독의 관조적”(이신정, 1998: 74) 시각이 반영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이런 장면들 속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일상적인 장면과 정원의 죽음과 관련된 장면이 나란히 있다는 것이다.(‘S#16 정원 마당’의 ㉡, S#65 부엌의 ㉠) 이는 죽음이 삶의 끝에 맞이하게 되는 극단적 체험이 아니라 일상 속에 한 부분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S#26 수산시장

〈그림 10〉 장면 26 수산시장

수족관 속의 ‘우력’은 아직 살아 있다.(㉠) 하지만 곧 죽음을 맞이할 것들이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수족관 안에서 살아 숨 쉬고 있었지만 머리가 잘린 채 요리감이 된 우력을 정원과 아버지가 바라보고 있다.(㉢) 정원은 수족관 안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고, 아버지는 그런 정원의 모습을 허한 숨

을 내쉬며 바라본다.(②) 수족관 속 우럭은 정원의 동일시 대상이다. 정원은 우력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과 닮아 있음을 상기하고 있고, 그런 정원의 심정을 아버지가 읽어내고 있는 것이다. 죽음은 강 건너 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 속에, 바로 옆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는 모두가 시한부이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현존재는 그가 존재하고 있는 한 이미 자신의 아직 - 아님으로 존재하듯이 그는 또한 언제나 이미 그의 종말로 존재한다.……죽음은 현존재가 존재하자마자 현존재가 떠맡는 그런 존재함의 한 방식이다.”(마르틴 하이데거, 1927/2013: 329) 인간은 언젠가는 죽는다. 하지만 대개는 그 사실을 망각한 채 일상을 살아간다. 어떤 이들은 마치 영원히 삶이 지속되기라도 할 것처럼 여기기도 한다. 남아 있는 시간이 길고 짧다는 것이 차이가 있을 뿐 우리 모두는 정원과 동일하다.

3. 죽음의 개별성과 적극성

죽음은 가장 확실한 존재 가능성이며 실존의 증명이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모든 현존재는 각기 죽음을 그때마다 스스로 자기 위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죽음은 그것이 있는 한, 본질적으로 각기 그때마다 나의 죽음이다. 그리고 죽음은 거기에서 단적으로 각기 자신의 고유한 현존재의 존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독특한 존재가능성을 의미한다. 사망함에서 드러나는 것은 죽음이 존재론적으로 각자성과 실존에 의해서 구성된다는 점이다.” 하이데거, 1927/2013: 322) 누구도 타인의 죽음을 대신할 수 없다. 설령 누구를 위해 대신 죽는 일이 있다고 해도, 그것 또한 그 사람의 죽음을 대신 하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죽음은 개별적이며 몰교섭성을 지니고 있다. 몽테뉴는 그의 『수상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죽음은 사회의 역할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한 인물에 관한 일이다. 살아서는 친지들과 함께 웃으며 지내다가 죽을 때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 가서 죽어가자.”(미셸 애켐 드 몽테뉴, 1580/2007: 253).

		
S#11 사진관 밖	⑦	⑧
S#12 정원 공간		

〈그림 11〉 장면 11 사진관 밖, 장면 12 정원 공간

‘S#11 사진관 밖’은 장례식장을 다녀온 후 힘들어하는 정원에게 다림이 빨리 해야 된다며 사진 현상을 요구하고 장면이다. ‘S#12 정원 공간’은 이따가 오라는 말에도 현상을 요구하는 다림을 뿌리칠 수 없어, 약을 먹고(⑦) 세수를 하는(⑧) 장면이다. 이 두 장면에서 우리는 병이든 죽음이든 개인의 고통은 철저히 개인의 소관임을 알 수 있다.

	
S#59 정원방	S#60 아버지방

〈그림 12〉 장면 59 정원방, 장면 60 아버지방

‘S#59 정원방’에서 정원은 천둥이 치고 비가 오는 밤, 잠을 이루지 못한다. 그는 자다가 일어나, 이제 곧 자신에게 닥쳐올 것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이기라도 하는 것처럼, 이불로 몸을 감싸고 천둥이 치고 빗소리가 요란한 창밖을 응시한다. 그러고 있다가 그는 아버지방으로 건너가 아버지 옆에 눕는다(S#60 아버지방). 물론 이 장면은 표면적으로는 인물의 불안한 심리를 드러

내고 있지만, 그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죽음의 개별적인 성격을 읽어 낼 수 있다. 우리는 대개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느끼고 누군가 옆에 있기를 바라지, 누군가 함께 할 때 그러한 감정을 느끼지는 않는다. ‘S#60 아버지방’에서 정원이 방 전너 아버지 옆으로 가서 누운 이유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위 두 장면은 정원이 이제 곧 혼자가 되어야 함을 인식 하는 장면으로, 죽음이란 누군가에게 떠맡길 수도, 누군가가 빼앗아갈 수도 없는 전적으로 고유한 자신의 책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3〉 장면 78 마루, 장면 79 정원방, 장면 80 마루

영화에서 정원이 소리 내며 우는 장면은 ‘S#79 정원방’ 단 한 번뿐이다. 그 울음소리를 듣고, 난에 물을 주고 있던 아버지가(S#78) 정원의 방문 앞에 서서 문을 열기 위해 문고리를 잡고 있다. 하지만 아버지는 문을 열지 않고 돌아서 간다. 그리고는 창밖 마당을 바라본다(S#80). ‘S#78 ~ S#80’은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단독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누구도 타인의 죽음을 대신 짊어질 수 없으며 심지어 그 어떤 말과 행동도 죽음의 당사자에게 근본적인 해결책을 안겨줄 수 없다. 결국 죽음의 당사자 자신이 죽음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처럼, 죽음은 막연히 두려운 대상이며, 일상 속에서 한 인간이 짊어져야하는 개별적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죽음을 죽음에 앞서 준비하고 맞이해야만 한다. 하이데거는 ‘죽음의 가능성’이 라고 봤다. 어떤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나 이 가능성이

그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거나 그 가능성으로 인해 그의 행동의 변화가 오지 않는다면 이는 가능성이 현존한다고 볼 수 없다(마크 A. 래틀, 2008: 126-127). 이와 같은 의미에서 다음 장면은 정원이 죽음에 앞서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S#67 정원방	S#77 사진관

〈그림 14〉 장면 67 정원방, 장면 77 사진관

‘S#67 정원방’과 ‘S#77 사진관’은 자신이 죽은 후를 생각해 아버지를 위해 비디오테이프 조작법과 현상기 작동법에 대한 메모를 남기는 장면이다. 이는 그가 죽음을 앞서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이데거에 의하면(마르틴 하이데거, 1927/2013: 336-337), 죽음이 단순한 사라짐이나 끝장, 삶이 종말과 다른 점은 이렇게 앞서 그것에 다가설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이것은 인간과 다른 동물들과의 차이점이기도 하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통합하는 기투성(企投性)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물론 죽음을 대상으로도 가능한 일이다.

몽테뉴는 노년에 담석증을 심하게 앓게 되고 참기 힘든 발작을 여러 번 경험한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죽음과 전적으로 화해하고 친밀해지려고 여태까지 해볼 수 없었던 일을 이 담석증이 완수해주었다고 하며, 그 이유를 이 병이 나를 압박하며 귀찮게 하면 할수록 나는 죽음이 덜 무서워질 것이기 때문이다.”(미셸 에켐 드 몽테뉴, 1580/2007: 173)라고 한다. 언뜻 보면, 그의 말은 모순적이다. 그러나 한 번 더 곱씹어 본다면 충분히 이해 가능하다. 그

는 병으로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을 것이고, 이 예감은 곧 죽음의 준비로 이어졌을 것이다. 즉 죽음을 맞이할 마음가짐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 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림 15〉 장면 104 사진관, 장면 105 촬영실

‘S#104 사진관’과 ‘S#105 촬영실’은 영화의 거의 끝부분에 해당하는 장면이다. ‘S#104’에서는 정원이 이제 죽음을 예감하고 앨범을 꺼내 보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고, ‘S#105’에서는 평소에 자신이 누군가의 영정 사진을 찍어주었듯 자신의 영정 사진을 스스로 찍고 있다. ‘S#104’에서 정원은 앨범 속의 옛 사진들을 보다가 피식 웃는다. ‘S#105’에서도 타이머기능을 설정한 후 사진기를 향해 무표정하게 있다가, 사진이 찍히기 바로 직전 밝게 미소 짓는다. 이는 정원이 죽음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앞서가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다.

‘S#105’에서 주목할 부분은 살아있는 정원의 얼굴 위로 영정사진 속 정원의 얼굴이 그대로 겹치는 디졸브이다. 이 장면은 앞서 밝혔던 작가의 연출 의도(가수 김광석의 영정에서 영감을 받은 감독은 그의 특유의 미소년 같은 웃음을 머금은 사진을 보며, 죽음이란 ‘살아가면서 느끼고 체험하게 되는 일상에 지나지 않는 일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사람 사는 이야기’를 하고자 했다)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⑦은 생의 안에 있는 존재이고 ⑧은 생의 밖에 있는 존재이지만 둘은 동일하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

해 죽음이 삶의 극단이라는 일반적인 인식이 어쩌면 죽음에 대한 큰 왜곡임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삶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기획하듯 죽음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다는, 그래야만 한다는 의미를 생각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다음 장면(S#54 사진관, S#57 촬영실)은 마치 ‘S#105 촬영실’의 예비 장면처럼 느껴진다.



〈그림 16〉 장면 54 사진관, 장면 57 촬영실

‘S#54 사진관’은 삼대가 모여 가족사진을 찍고 난 후 ‘아들’이 ‘할머니’(아들의 어머니)에게, 사진관에 오셨는데 독사진 하나 찍으시라고 하는 장면이다. 이에 할머니는 천천히 찍자고 하지만, 아들은 계속 권유하고(㉠), 급기야는 사진(영정)을 찍는다.(㉡) 할머니가 사진을 찍는 동안, 가족들은 할머니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얼마 전에 산 아파트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이에 ‘할머니’가 얼굴을 찡그린다.(㉡) 그날 밤 할머니가 홀로 사진관에 찾아와 사진을 다시 찍고 싶다고 말한다.(S#57 촬영실)

이 두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할머니의 차이점이다. ㉡은 안경(아들이 해 준 것으로 ‘S#54 사진관’에서 할머니는 그것을 쓰고 사진을 찍는다)을 쓰고 있고, 무채색에 가까운 한복을 입고 있고, 찡그리는 얼굴을 하고 있다. 그에 비해, ㉠은 안경을 벗고 있고, 화사한 분홍빛의 한복을 입고 있고, 웃는 얼굴을 하고 있다. 두 장면의 차이점에서, 우리는 ‘할머니’가 얼굴을 찡그렸던 근본 이유가 ‘준비’에 있었음을 감지할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죽을 때가 된 자신이 폐물 취급당하는 것에 대한 서운함이라기보다 자신의 마지막

이 타인의 강요에 의해 이루어지 있는 것에 대한 불만임을 추측할 수 있다.

‘S#57 촬영실’에서 할머니는 사진을 찍기 전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진 후, “사진 예쁘게 잘 찍어줘야 해, 제사상에 놓을 사진이야.”라고 정원에게 웃으면서 말한다. 이 두 장면에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개별적인 성격을 지녔다는 것과 이에, 스스로 앞서 준비해야만 하는 본인만의 소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정원은 안경을 벗어보라고 조언을 하는 등 사진 찍기에 심혈을 기울인다. 할머니는 정원의 심리가 투사된, 정원과 동일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페이지아웃 되기 전에 다음과 같은 내레이션이 나온다. “내 기억 속의 무수한 사진들처럼 사랑도 언젠간 추억으로 그친다는 것을 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만은 추억이 되질 않았습니다. 사랑을 간직한 채 떠날 수 있게 해준 당신께 고맙다는 말을 남깁니다.” 여기에서 ‘추억’이란 사랑의 유한성의 다른 이름일 것이다. 우리의 삶에서 영원한 사랑을 찾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랑에 빠진 그 순간 그 사랑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한다. 그리고는 그 사랑이 끝났을 때 그것에 추억이란 이름을 붙인다. 이 과정은 대개 우리의 삶에서 부지불식간에 반복된다. 그 이유는 어쩌면 살아가고 있는 과정은 곧 죽어가는 과정이라는 인식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이와는 반대로, 정원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 준비된 자였기에 사랑을 간직할 수 있었던 것이다.



S#103 정원 공간

〈그림 17〉 장면 103 정원 공간

죽음의 유형을 대략 9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다고 한다(오진탁, 2010: 52-66). 첫째, 절망, 두려움, 둘째, 부정, 셋째, 분노, 넷째, 슬픔, 다섯째, 삶의 마무리, 여섯째, 수용, 일곱째, 희망, 여덟째, 마음의 여유와 유머, 아홉째, 밝은 죽음이 그것이다. 사람마다 죽음에 대한 반응은 각기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하다면 흔히 첫째와 다섯째 단계 사이에 머무를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여섯째와 아홉째 단계로 넘어설 것이다. 첫째 단계로 갈수록 바람직하지 못한 죽음, 아홉째 단계로 갈수록 성숙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 〈8월의 크리스마스〉 속의 죽음은 위의 9가지 반응을 모두 보인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자보다는 후자 쪽 반응을 주로 보이며, 정원이 자신의 영정 사진을 스스로 찍는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밝은 죽음으로 마무리한다. 이는 죽음의 당사자가 죽음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으며, 죽음준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8〉 장면6 학교 운동장, 장면37 운동장, 장면73 학교 운동장, 장면106 학교 운동장

만났을 때 이별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 만남이 더 지속될 수도 있으며, 살면서 죽음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삶이 더 희망찰 수도 있다. 죽음은 흔히 은폐되기 쉽다. 하이데거는 ‘사람은 죽는다’라는 기본 명제에는 반드시 죽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아직 눈앞에 있지 않기에 위협적이지 않은 어떤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죽음은 (내가 아니라) 그들을 적중시킨다는 의견을 펴뜨린다.”, “모두 다이기는 하지만 나는 아니야. 왜냐하면 여기서의 그들이 란 아무도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죽음은 막연

한 것이 아니고, 삶의 시작과 함께 시작되는 것이다. 즉 삶과 죽음은 동일하다. 이런 의미에서, 죽음을 생각하며 바라보고 있는 운동장(S#6 학교 운동장, S#37 운동장)과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하는 운동장(S#73 학교 운동장), 그리고 눈으로 덮인 운동장(S#106 학교 운동장)은 모두 동일한 운동장이다.

III. 결론

지금까지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에 나타난 죽음인식을 장면분석으로 중심으로 살펴보았다.(지면 관계상 언급되지 못한 장면들도 있음을 밝힌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 번 한 가지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것이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와 같은 물음을 하는 이유는 물론, 인간은 죽어야만 하는 운명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영원히 사는 자와 이제 곧 죽는 자의 삶의 방식은 분명 다를 것이다. 즉 우리가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그 물음은 곧 삶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으로 환원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죽음에 대한 이해는 삶에 대한 이해와 동일한 것이다. 죽음에 대한 왜곡은 삶의 왜곡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반대로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보다 풍요로운 삶의 토대가 되기도 한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죽음은 더욱 두려운 것이 되었고, 비인간화되었다. 바쁜 일상은 죽음을 생각할 틈을 허락하지 않기에, 사람들은 대개 죽음이 먼 곳에 있는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 ‘죽음과 죽어감’에 대한 선구자적 사유 체계를 마련한 퀴볼리 로스는 “누구나 실제로 죽음과 맞닥뜨리기 전에 평상시에 습관적으로 죽음과 죽어감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한다.” (엘리자베스 퀴볼리 로스, 1974/2018: 73)고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삶의 어느 시기에서건 적절한 죽음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시기에는, 또한 과잉 경쟁에 내몰린 오늘날의 청소년들에게는 그 필요

성이 보다 절실하다고 하겠다.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는 오랫동안 국어과 텍스트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현행 국어와 문학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작품이다. 이에 문학 수업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죽음에 대해 논의해볼 수 있는, 죽음교육에 가장 적합한 매체라고 할 수 있다. <8월의 크리스마스> 속에서도 죽음은 슬픔의 원인이며, 두려운 대상으로 그려지고 있다. 하지만 그것으로만 그치고 있지 않다. 영화가 말하고 있는 죽음은 삶의 먼 극단에 있는 특별한 사건이 아닌 일상과 늘 같이 하는 것이며, 살아가는 과정이 곧 죽어가는 과정이란 점에서 삶과 동일한 것이며, 어느 누구도 대신 할 수 없는 개별적인 것이며, 그런 이유로 막연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앞서 적극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준비해야만 하는 그런 것이다. 우리 모두는 영화 속 주인공 정원과 같다. 영원히 살 수 없다는 점에서 누구나 시한부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시기를 막론하고 죽음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학습해야만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를 들어서면서부터, 생활의 윤택과 맞물려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의 문제(well-being)가 삶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대하여 ‘육체적인 질병은 물론 정신적, 사회적으로도 질병이 없는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거기에다 영적인 건강을 추가해서 해석하는 경향도 있다.” (조용기, 2016: 35) 이러한 경향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잘 죽을 것인가(well-byting)의 관심으로 이어지며, 전에 비해 죽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8월의 크리스마스>는 한 인물의 삶과 사랑 그리고 죽음을 통해 삶의 본질과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인식 차원을 제시한 작품으로, 정규교육 과정에서의 좋은 수업매체일 뿐 아니라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적합한 죽음교육 교본이라고 할 수 있다.

* 본 논문은 2019.1.30. 투고되었으며, 2019.2.1. 심사가 시작되어 2019.3.11. 심사가 종료 되었음.

참고문헌

- 강경화(2014), 「영화 읽기 지도 방안 연구-『8월의 크리스마스』를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구인희(2015), 『죽음에 관한 철학적 고찰』, 서울: 한길사.
- 김도희(2010), 「국어 교과서를 활용한 죽음교육: 죽음 모티프 분석을 통한 교육 방법 모색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46, 1-30.
- 김만진(2004), 「8월의 크리스마스」, 『월간 CONCEPT』 59, 112-115.
- 김명숙(2010), 「한국인의 죽음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한 철학적 고찰」, 『儒家研究』 22, 73-108.
- 김윤식·김종철·정호옹·안혁·김효정(2011), 『고등학교 문학』, 서울: 천재교육.
- 김현주(2005), 「죽음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마크 A. 래틀(2008), 『HOW TO READ 하이데거』, 권순홍(역),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 마르틴 하이데거(2013), 『존재와 시간』, 이기상(역), 서울: 까치글방(원서출판 1927).
- 미셸 애겔 드 몽테뉴(2007), 『몽테뉴 수상록』, 송우성(역), 서울: 문예출판사(원서출판 1580).
- 안소윤(2018), 「청소년 소설 속 죽음 인식에 대한 문학교육적 접근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알폰스 데肯(2002),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오진탁(역), 파주: 궁리.
- 엘리자베스 쿠블리 로스(2018), 『죽음과 죽어감』, 이진(역), 서울: 청미(원서출판 1974).
- 오진탁(2010), 『삶, 죽음에게 길을 묻다』, 서울: 중이거울.
- 윤여탁·김정우·박종훈·박재승·오현아·송지연·최영환·유갑천·조성범·김수학·박양숙·이동민·이호종·주상돈·한상진·정지민·이민희·고은정(2014), 『고등학교 국어1』, 서울: 미래엔.
- 이신정(1998), 「죽음의 일상적 의미 - 허진호 감동, 한석규·심은하 주연의 〈8월의 크리스마스〉」, 『새가정』, 45(488), 74.
- 이진희(2008), 「죽음과 도덕 교육에 대한 일 연구」, 『윤리연구』 71, 199-223.
- 임병식·신경원(2017), 『죽음교육교본』, 서울: 가리온.
- 정재걸·이현지·이승연·백진호(2013), 「청소년 죽음교육을 위한 예비적 고찰 - 중, 고등학생의 죽음관을 중심으로 -」, 『중등교육연구』 61(3), 539-542.
- 조용기(2016), 「현대인에게 있어 웰빙(Well-being)과 웰다잉(Well-dying)의 진정한 의미」,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지』 8(1), 35.
- 지봉환(2007), 「청소년의 죽음의식 연구」, 『도덕윤리과교육』 25, 203-228.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통한 죽음인식에 대한 교육적 접근 연구 — 장면분석을 중심으로

김수완

죽음은 삶의 극단이 아니다. 삶의 과정과 죽음의 과정이 일치하기에 삶의 다른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막연히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해 왜곡한다. 이는 곧 삶의 왜곡으로 이어지므로 시기를 막론하고 그에 적합한 죽음교육이 필요하다. 과잉 경쟁에 내몰린 오늘날의 청소년들에게는 그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고 하겠다.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는 매체교육과 관련해서 꾸준히 교재로 활동되어 왔지만, 극 양식으로서의 특징과 관련된 내용에 국한되어 있다. 본 영화를 연출한 허진호 감독은 ‘죽음이란 일상에 지나지 않는 일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사람 사는 이야기’를 하고자 했다. 감독의 의도처럼 영화는 시한부의 한 남자의 삶을 통해 죽음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다.

본 영화에서 그려지는 죽음도 두려움에 대상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일상과 별반 다르지 않으며,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개별적인 것이며, 스스로 적극적으로 맞이해야만 하는 그런 것이다. 우리 모두는 영화 속 주인공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막론하고, 죽음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학습해야만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본 영화는 삶과 죽음의 본질을 일깨워주는 적절한 죽음교육 교본이라고 할 수 있다.

핵심어 죽음, 삶, 죽음인식, 죽음교육, 두려움, 불안, 일상성, 개별성, 적극성

ABSTRACT

A Study on the Educational Approach to the Awareness of Death through the Movie ⟨Christmas in August⟩ — Focusing on Scene Analysis

Kim Suwan

Death is not the extremes of life. It is a different expression of life because the process of life and the process of death coincide. But we are afraid of death and distort the death. This leads to the distortion of life, so it is necessary for the death education to be appropriate regardless of time. I think that the need for today's youth, who have been put into excessive competition, is more urgent.

The film "Christmas in August" has consistently been used as a textbook in relation to media education, but it is limited to the features rela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drama genre. Director Heo who directed this movie wanted to do "A story about people who started from the idea that death might be nothing more than a routine." Like the director's intentions, The movie makes us think about death through a dying man.

Death depicted in this movie is also a subject of fear, but it is only part of it. It is something that is not different from daily life, it is individual that no one can substitute, and it must be actively welcomed by oneself. All of us are not much different from the characters in this movie. Therefore, we must think, prepare, and learn about death at all times. In this sense, this movie is a good death education book that reminds the nature of life and death.

KEYWORDS Death, Life, Death awareness, Death education, Anxiety, Dailiness, Individuality, Activeness

〈활용예시〉



〈별문〉

잠을 이루지 못하는 정원이 다시 방에 불을 켜고 이불을 감싼 채 앓아 비가 내리고 천둥이 치는 창밖을 올려다보고 있다.⑦ 그러다 아버지의 방으로 건너가 그의 옆에 살며시 눕는다.⑧ 어느 날 밤, 마루에서 난을 낚던 아버지가 정원의 흐느낌 소리가 방문을 열어보려 한다.⑨ 문고리를 잡았던 아버지는 문을 열지 않고 마루에 서서 창밖을 내다본다.⑩

장면 ⑦~⑩에 드러나는 죽음에 대한 인식을 작품 전체를 바탕으로 서술하시오.

〈예시답안〉

정원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비가 내리고 천둥이 치는 밖을 올려다보는 것은 이제 곧 자신에게 닥쳐올 죽음에 대한 불안 때문일 것이다. 그가 아버지 방으로 살며시 들어가 아버지 곁에 눕는 것도, 깜깜한 방에서 혼자 흐느끼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죽음은 거부하고 싶은 두려움의 대상이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누구와도 나눌 수 없고, 누가 대신 짊어질 수 없는 개별적인 것이다. 그러기에 정원은 아버지 곁에 그저 누워 있을 뿐이며, 아버지는 흐느끼는 아들을 외면할 수밖에 없다. 죽음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도움을 줄 수도 없는 것이다.